

2023 IMPACT REPORT

녹색연합

“가장 먼저 현장을 찾고, 마지막까지 머무는 사람들”

가치있는 사회변화를 만드는 혁신조직의 그라운드

 Brian Impact 가 함께 합니다



2023 IMPACT REPORT

녹색연합

“가장 먼저 현장을 찾고, 마지막까지 머무는 사람들”



이 임팩트 리포트는 (재)브라이언임팩트의 임팩트그라운드 사업에서 지원하는 사회혁신조직이 그리는 임팩트와 미래비전을 소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발 행 처 (재)브라이언임팩트

발 행 일 2024년 4월

발 행 인 박승기

이 메 일 contact@brianimpact.org

홈 페이지 brianimpact.org

기획 및 제작 (주)한국사회가치평가

가치있는 사회변화를 만드는 혁신조직의 그라운드

임팩트그라운드

(재)브라이언임팩트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기부 선언과 함께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특히 과학 기술 영역에서 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는 혁신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소셜임팩트 생태계를 응원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혁신가와 단체들이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01	임팩트 리포트 소개	1
02	녹색연합 소개	5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6
	▶ 4대 강령	7
	▶ 환경 의제	8
03	임팩트 측정	11
	▶ 임팩트 창출 프로세스	12
	▶ 임팩트 하이라이트	13
	▶ 환경 의제별 정량 임팩트	14
04	임팩트 핵심 동력	21
	▶ 임팩트 핵심 동력	22
	▶ [동력1] 역동적으로 일하며 오롯이 걷는 활동가 운동력	24
	▶ [동력2] 야생하다, 현장성	26
	▶ [동력3] 짙은 호소력, 의심할 바 없는 진정성	28
	▶ [동력4] 존재와 지속의 이유, 책임감	30
05	미래비전	33
	부록: 인터뷰	37

01 **임팩트 리포트 소개**



▶ **임팩트 리포트 소개**

녹색연합이 다루는 환경 의제인 '야생동물, 생태계보전, 생활환경, 에너지전환, 기후위기, 평화와 생태' 영역의 주요 성과를 요약하고,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임팩트 핵심 동력을 소개합니다. 리포트에 담긴 녹색연합의 성과는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에 기초해 연구하였으며, 임팩트 측정 전문기관인 한국사회가치평가와 함께 측정 및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 **1994년~2023년 성과 측정**

각 환경 의제를 다루기 시작한 시기부터 2023년까지의 활동 성과를 분석하여 담았습니다.

✓ **이해관계자에 기반한 임팩트 모델 도출**

핵심 이해관계자를 '정부, 기업, 시민, 환경'으로 구분하여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 **성과 창출의 핵심 동력 분석**

정부, 기업, 시민, 환경의 변화를 만들 수 있었던 임팩트 동력을 분석했습니다.

✓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 활용**

성과에 따라 수치, 비율 등을 사용하는 정량적 방법과 설문, 인터뷰를 활용하는 정성적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녹색연합은 1991년 창립하여 올해 34년이 되는 우리나라 자연을 지키는 환경단체입니다. 주요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9개 지역 조직과 4개의 전문기구가 주요 생태축인 백두대간과 DMZ를 보전하고 야생동물과 그들의 서식지를 지킵니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현장을 감시하며 '에너지가 정의로운 세상, 쓰레기가 없는 지구,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사회'를 그려갑니다. 생명이 고통받는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답을 찾고, 가장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습니다.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 자연의 권리 제안

녹색연합은 자연과 그곳을 삶터로 살아가는 수많은 야생동식물이 자신의 모습대로 살 수 있는 권리인 '자연의 권리'를 제안합니다. 야생의 편에 서서 생명이 고통받는 현장에서 활동합니다. 꼭 지켜야 할 자연을 직접 발로 뛰며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보호방안을 만듭니다.

✓ 우리 삶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문제의 해결

우리의 자연이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되지 않고 공공재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오염자부담원칙'을 법제도로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시민과 함께하는 삶의 변화

녹색연합 활동의 중심에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일상을 사는 시민이 직접 환경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실천하도록 제안합니다. 또한 환경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지원하고 연대합니다.

▶ 4대 강령

녹색연합은 '생명존중, 생태순환사회, 비폭력평화, 녹색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생태, 생활, 환경갈등 현장에서 활동을 펼칩니다.

생명존중

- 우리는 모든 생명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한다.
- 우리는 생명의 터전인 산림생태계, 하천생태계, 해양생태계 등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명윤리를 위협하는 유전자 조작과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반대하며, 생명안전과 생태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생태순환형 사회 건설

- 우리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중심의 왜곡된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생태순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우리 삶을 성찰하고 절제된 소비를 통해 소박하고 작은 것이 아름다운 생활양식을 정착시켜 나간다.
- 우리는 미래세대가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권리를 존중하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핵 발전과 화석연료 중심의 잘못된 에너지체계를 바로잡고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꾀한다.

비폭력평화 실현

- 우리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차별을 거부한다.
- 우리는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협하는 살상무기 폐기, 전쟁위험을 일으키는 군비경쟁과 군수산업 중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우리는 나이, 성별, 빈부, 신체조건, 성 정체성과 지향, 출신으로 인한 차별을 막고 사회 약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녹색자치 실현

- 우리는 참여민주주의와 자치, 분권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환경문제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생태마을, 생태도시, 녹색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녹색운동의 발전을 위해 나라 안팎의 사회운동세력과 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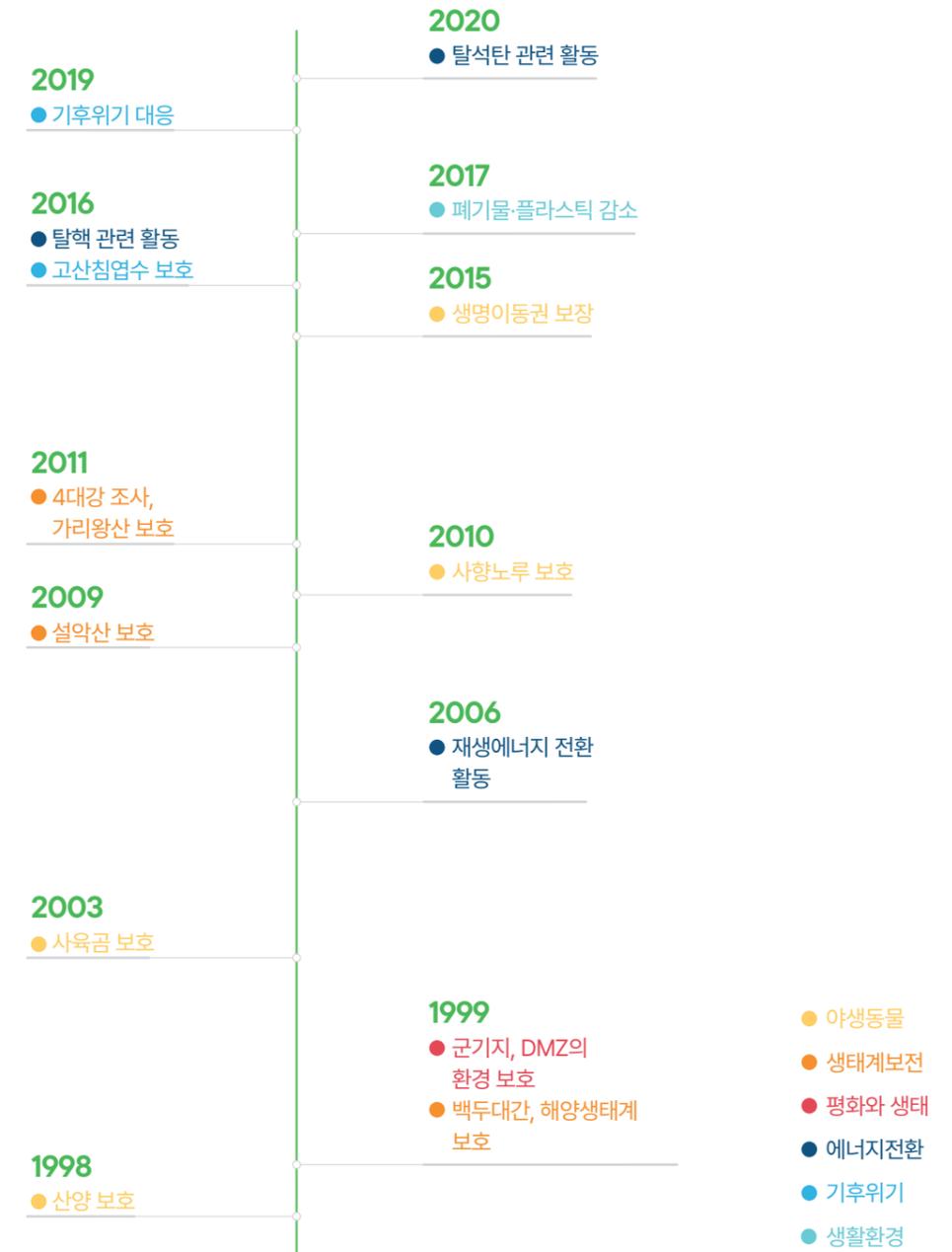
환경 의제

환경 의제

녹색연합은 숲과 나무, 하늘과 바다, 물과 갯벌, 그리고 도시에서 생명의 경계를 넘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최일선에서,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고자 하는 일념으로 묵묵히 활동을 이어오며, 6개 분야에서 19개의 방대한 환경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생태현장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할 것입니다.



사업 추진 연도



03 **임팩트 측정**

- ▶ 임팩트 창출 프로세스
- ▶ 임팩트 하이라이트
- ▶ 환경 의제별 정량 임팩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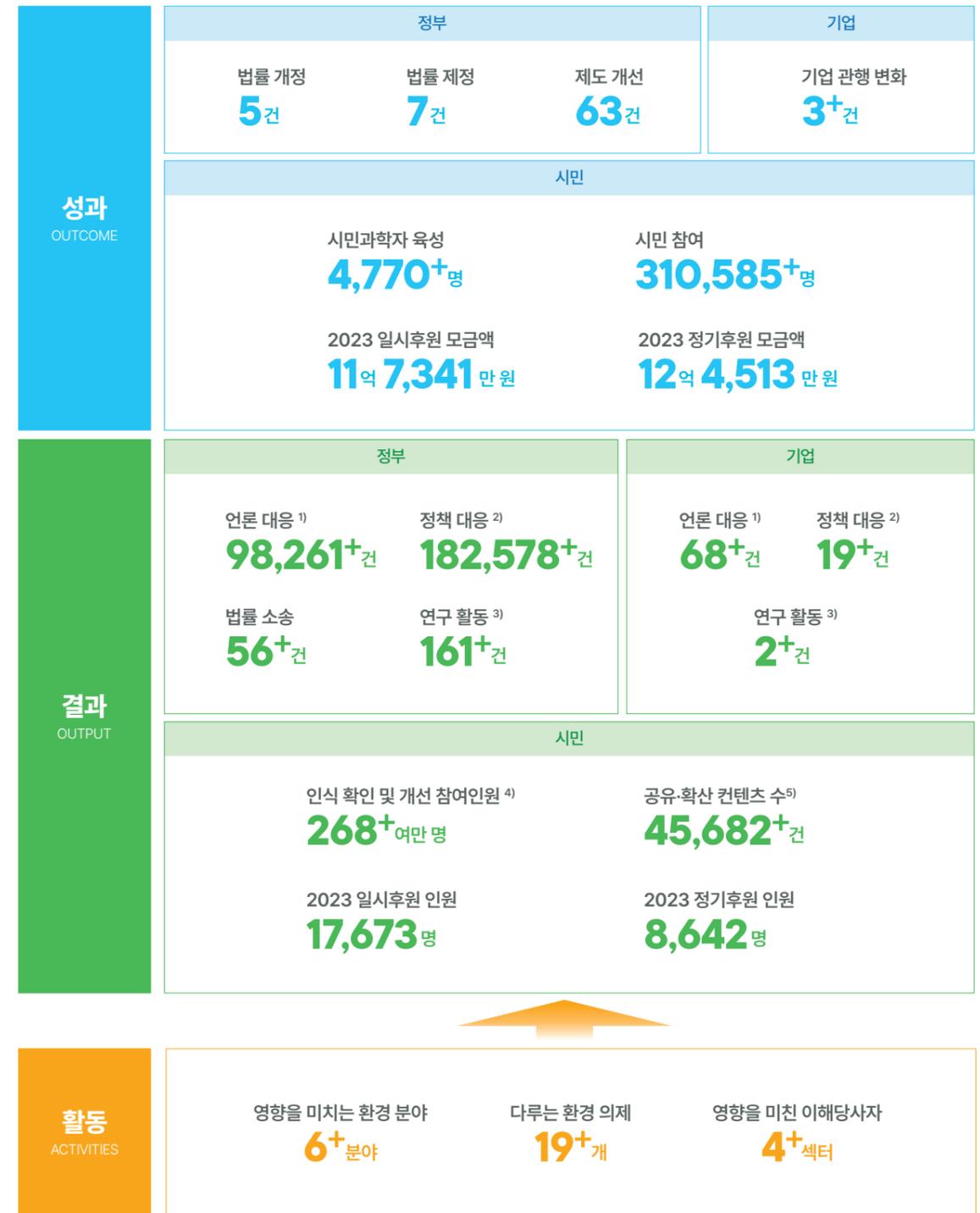
▶ 임팩트 창출 프로세스

녹색연합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 기업, 시민, 환경'에 영향(impact)을 미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 활동의 본질은 정부의 변화, 즉 법과 제도를 개선시킴으로써 항구적 변화를 추동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장의 소리로 문제를 공론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목표로 문제해결 전략을 수립합니다.



▶ 임팩트 하이라이트

* 기간: 각 의제별 사업 시작연도~2023년 누적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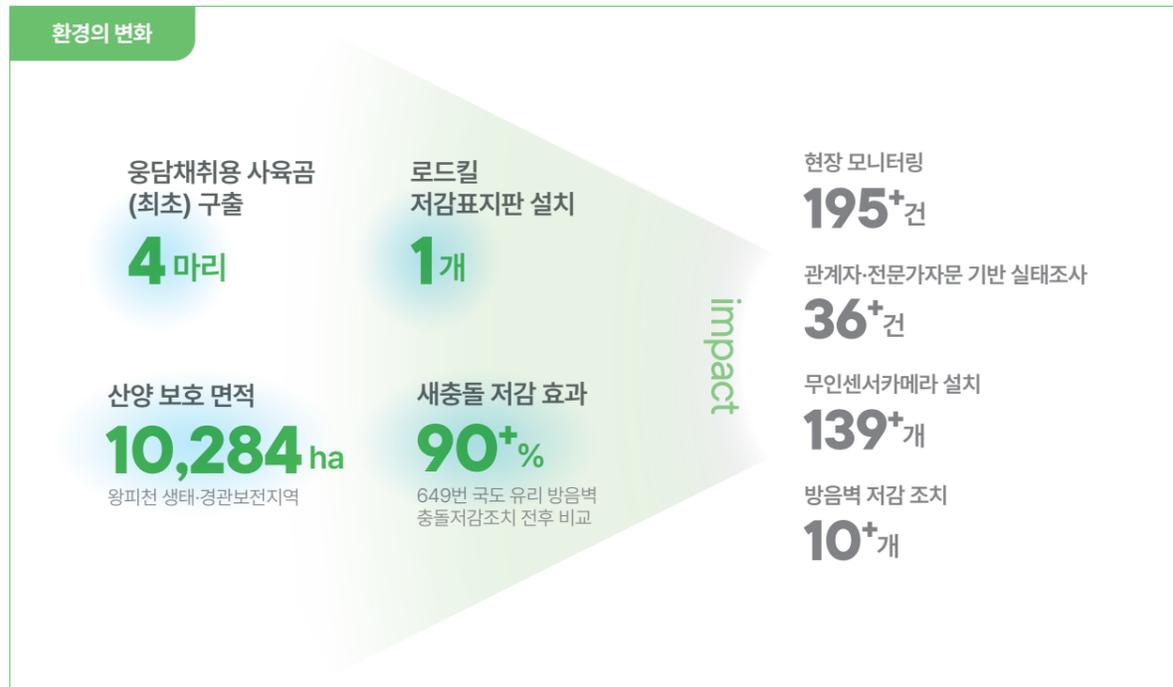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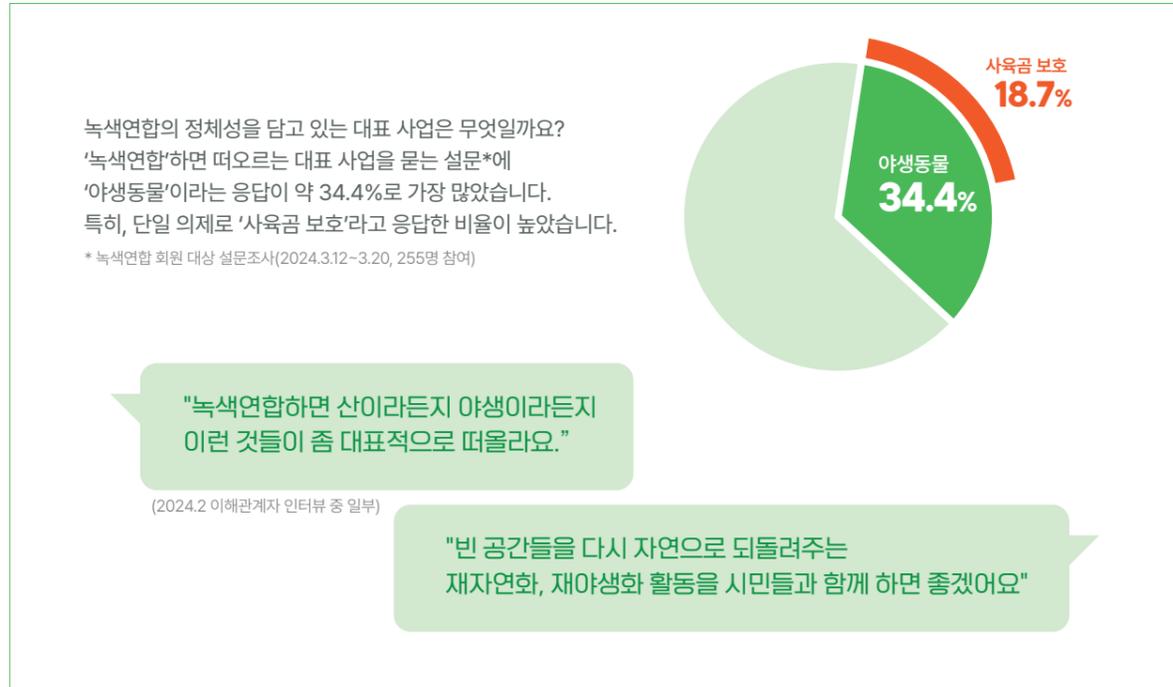
1) 보도자료(동행 취재 포함), 기자회견, 언론보도, 언론기고 등
 2) 거버넌스 구성 및 참여, 질의서의견서 발송, 국정감사 대응, 법안 발의, 정보공개청구, 토론회·간담회·포럼 등
 3) 이슈리포트 발행, 법률 제정·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세미나·워크숍·포럼·컨퍼런스 등
 4) 시민과학 프로그램, 설문조사, 강좌·컨퍼런스·교육, 서명 운동, 집회·시위·공동광고, 기타 캠페인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
 5) 기획 홍보 콘텐츠 발행, 리포트·가이드북·리플렛 발행, 출판 등

환경 의제별 정량 임팩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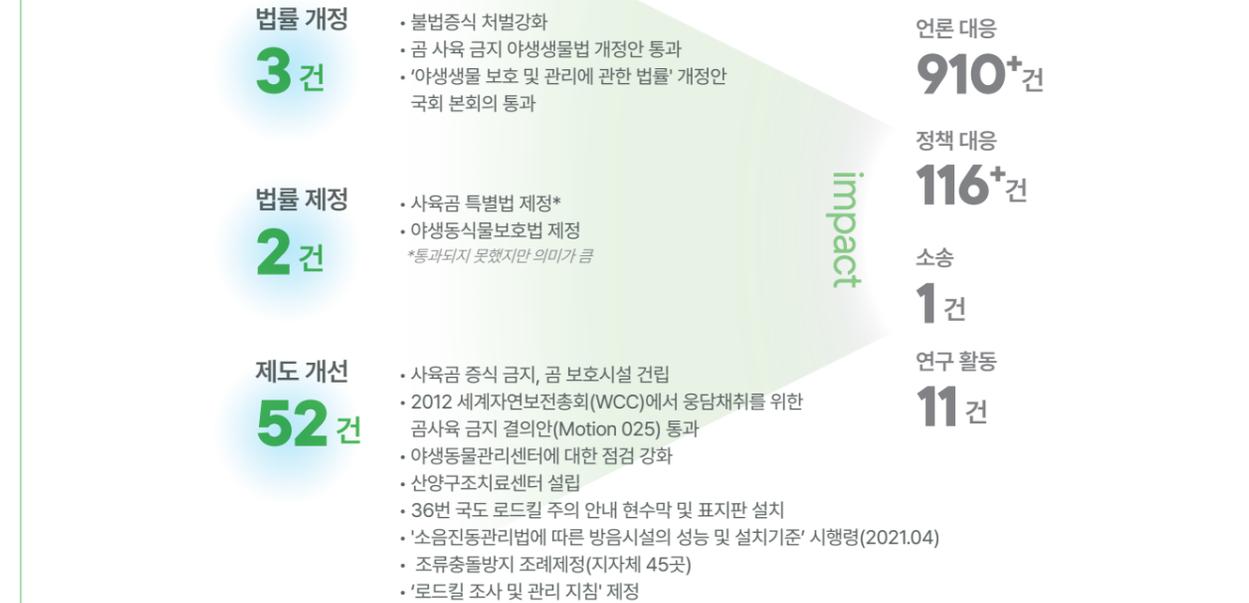
* 기간: 각 의제별 사업 시작연도~2023년 누적 데이터

야생동물

동식물이 살아가는 서식지를 지키고자 사육곰, 산양, 사향노루 보호와 더불어 생명이동권을 위해 오랜 기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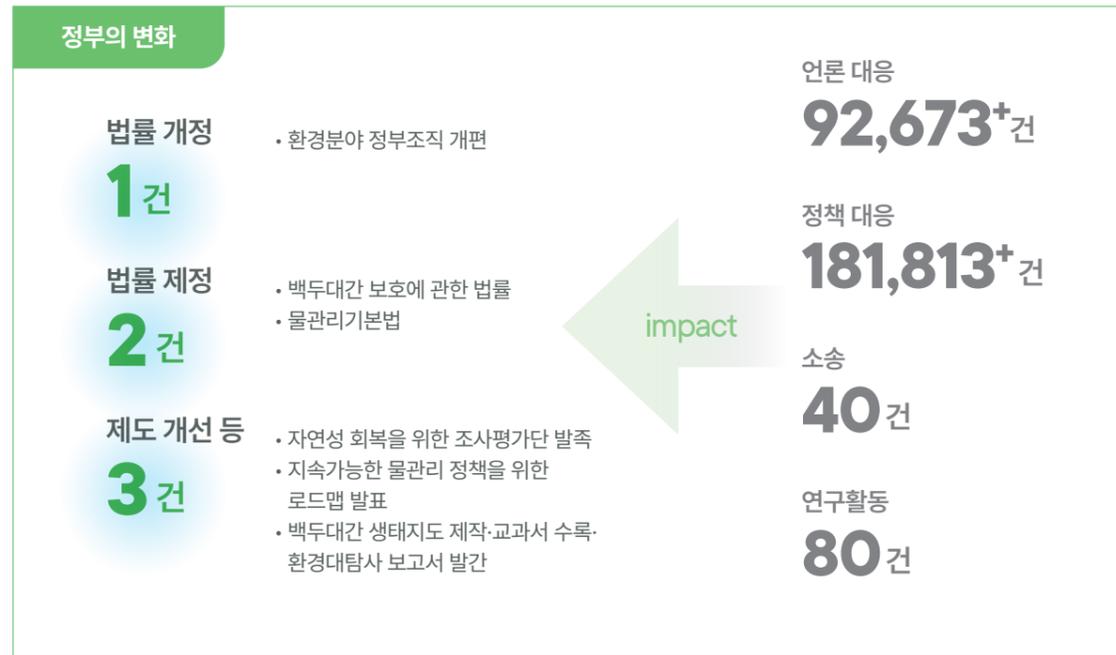


시민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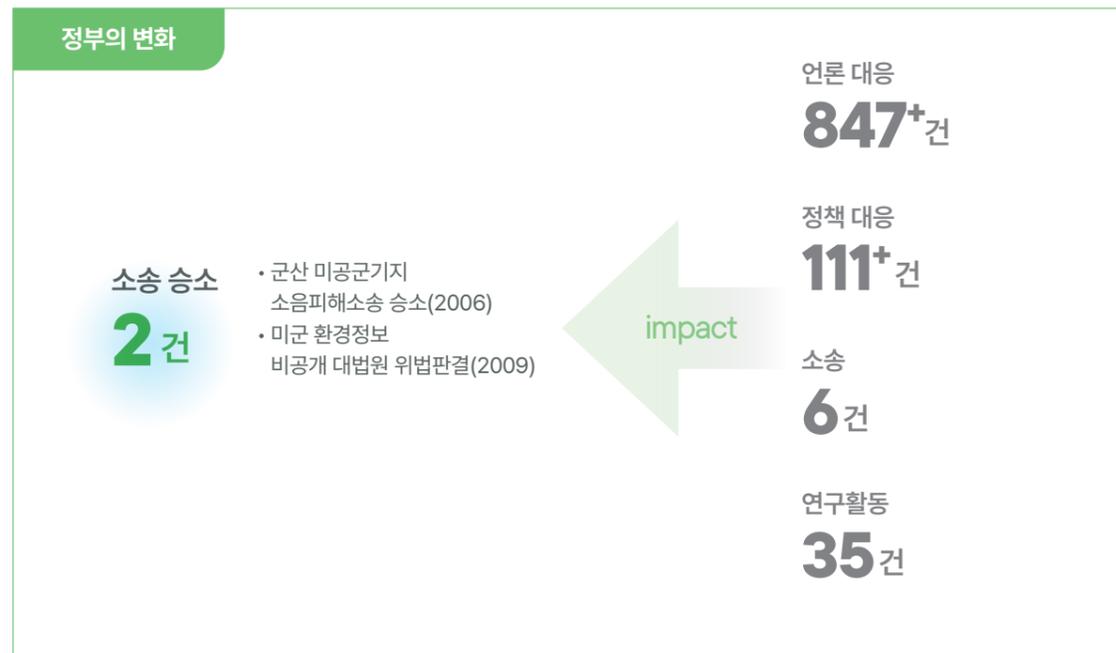
✓ 생태계보전

이용과 개발 중심의 정책은 우리 숲과 강을 상처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상처는 고스란히 자연에 기대어 사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녹색연합은 4대강, 가리왕산, 백두대간, 설악산, 신공항 난개발, 해양 문제를 해결하며 생태계 보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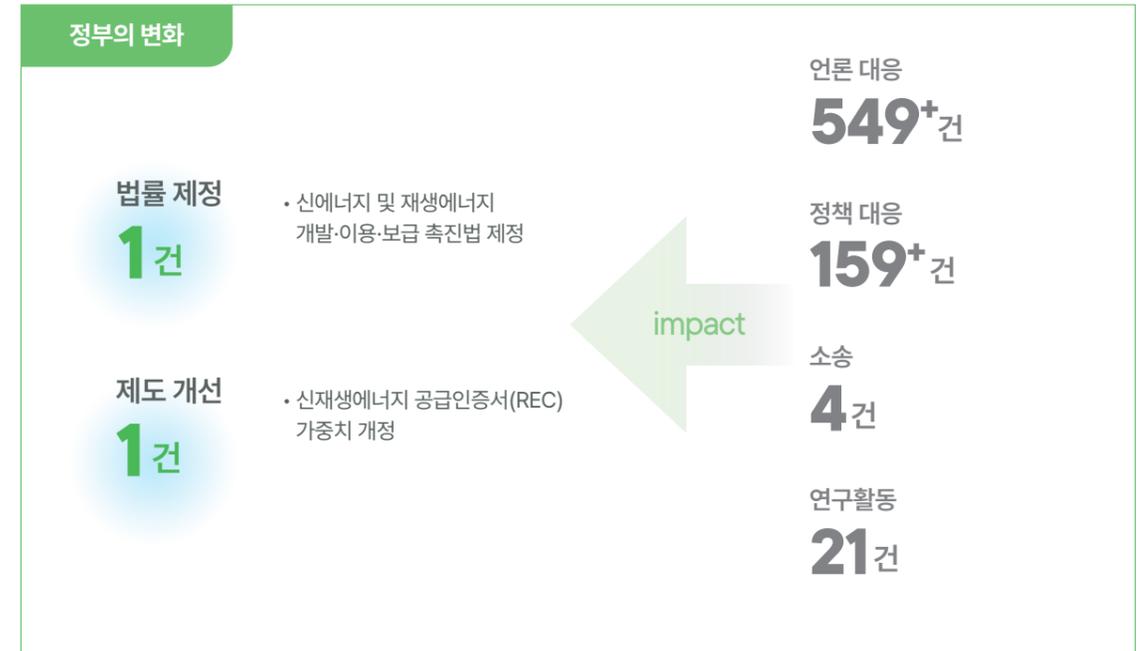
✓ 평화와 생태

녹색연합은 하나된 한반도를 바라봅니다.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차별을 거부하고 전쟁이 남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평화와 생태는 나란히, 더불어 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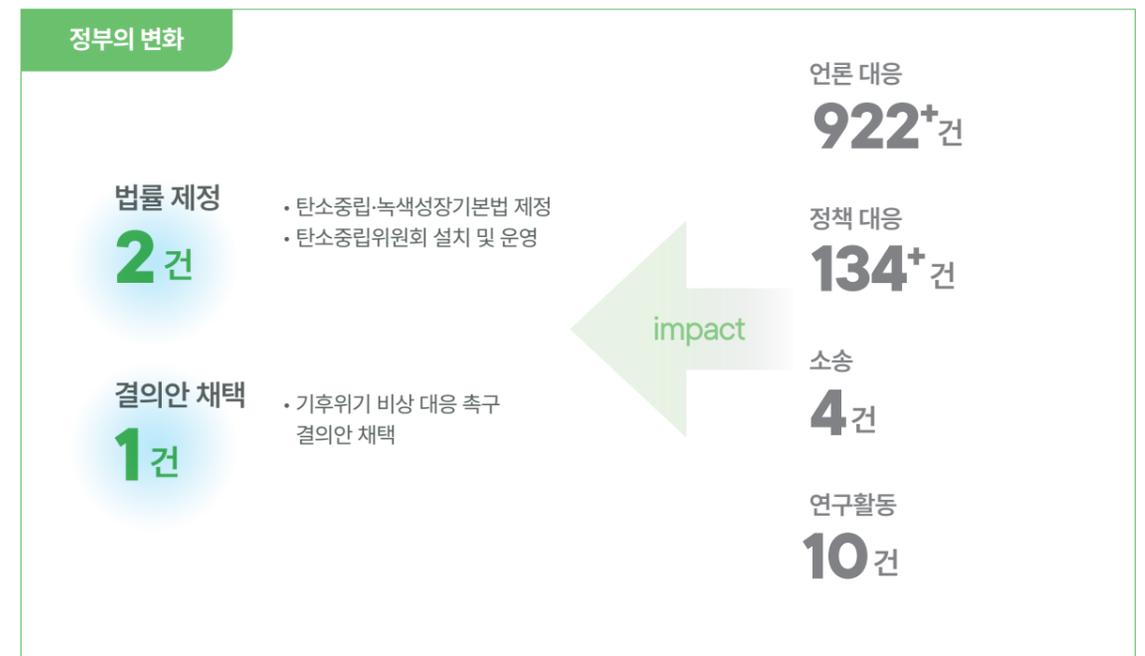
✓ 에너지전환

전 세계는 지금 탄소 문명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탈핵과 탈석탄으로, 정의로운 관점에서의 에너지 전환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입니다.



✓ 기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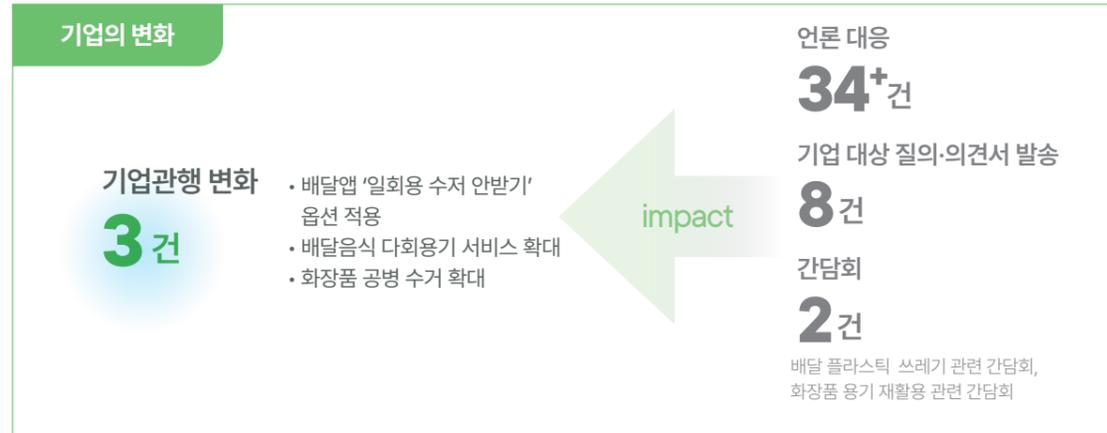
녹색연합은 기후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겪는 생태계 현장을 살펴보고,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후위기의 문제들을 알려 보다 적극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 생활환경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보내고 잠이 드는 순간까지, 숨 쉬고 입고 먹는 모든 것들이 전부 환경 문제입니다.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플라스틱,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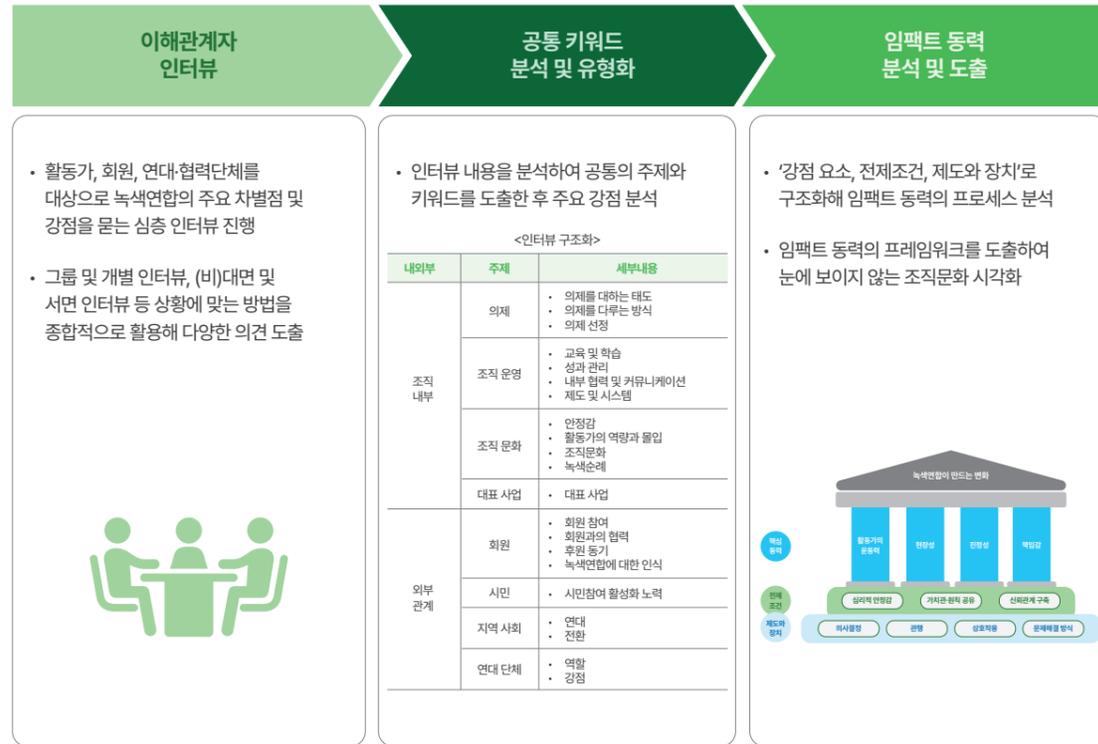
04 **임팩트 핵심 동력**

- ▶ 임팩트 핵심 동력
- ▶ [동력1] 역동적으로 일하며 오롯이 걷는 활동가 운동력
- ▶ [동력2] 야생하다, 현장성
- ▶ [동력3] 짙은 호소력, 의심할 바 없는 진정성
- ▶ [동력4] 존재와 지속의 이유, 책임감

▶ 임팩트 핵심 동력

✓ 도출 프로세스

빠곡한 현장의 기록은 법안이 되고 제도가 되어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묵묵히 현장을 발로 뚫 수 있게 한, 녹색연합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녹색연합의 핵심 역량 및 강점을 알아보기 위해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이해관계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녹색연합만의 차별점을 구조화해 임팩트 동력을 분석했습니다.



인터뷰 개요

•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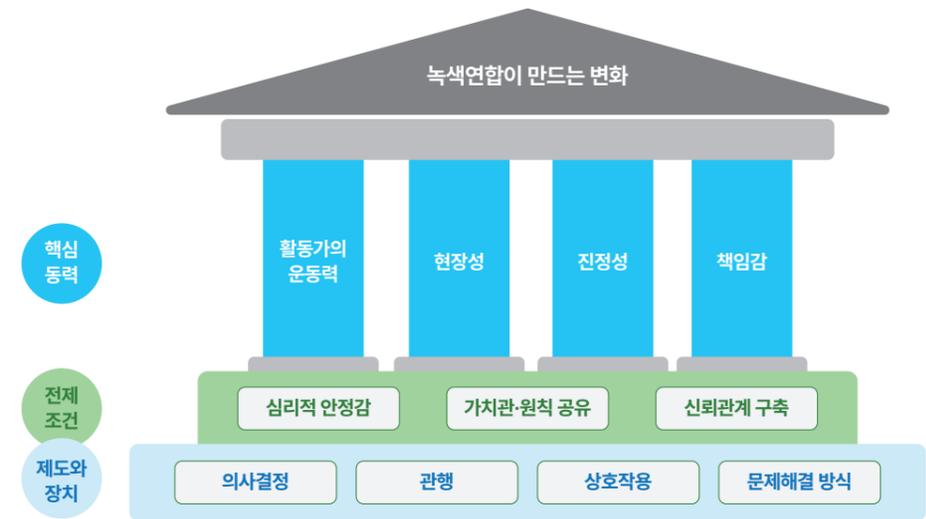
활동가 6인	자연생태팀, 녹색사회팀, 기후에너지팀, 홍보팀
회원 2인	정기 후원 9년차, 10년차
연대·협력단체 3인	공공기관, 기업, 환경단체

• 인터뷰 내용

활동가	목표 설정 방식, 운영 방식, 인적 자원 및 네트워크, 지지층 확보 및 지지 기반 마련
회원	후원 동기, 회원 참여, 강점 및 차별점, 활동 및 사업
연대·협력단체	협력 사업, 협력 방식 및 역할, 강점 및 차별점

- 방법: (비)대면 및 서면 진행
- 기간: 2024.2.7~2.27 (21일간)

✓ 임팩트 핵심 동력



녹색연합은 활동가의 역량과 몰입이 원동력이 되어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조직입니다. '활동가의 운동력, 생태감수성을 기반으로한 현장성, 환경 의제를 다루는 진정성, 맡은 의제를 끝까지 붙드는 책임감'은 녹색연합이 가치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활동가 중심 조직문화를 만들어내는 전제조건은 동료들에게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 활동가 간 공유하는 가치관과 원칙, 조직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신뢰관계입니다. 수십 년간 함께 호흡하며 쌓아온 조직문화는 녹색연합의 강점이자 차별점이며, 이러한 문화를 제도와 장치로 마련하여 후배 활동가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 [동력1] 역동적으로 일하며 오롯이 걷는 활동가 운동력

지난 34년 간 녹색연합 활동가의 발이 닿지 않은 현장이 없었습니다. 현장 데이터와 지역주민을 고려한 활동가 중심의 운동력은 녹색연합이 내세우는 강점이자 특별함이며, 활동가와 회원, 협력단체 모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녹색연합의 가장 큰 역량입니다. 활동가의 주체성과 전문성, 몰입은 우리 사회에 녹색 임팩트를 주는 근본이 되는 힘이자 핵심 요인입니다.



녹색연합 활동가

의제 발굴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전체 과정 안에 활동가의 주체성과 책임감, 그리고 전문성이 긍정적으로 많이 발현이 되어 지금까지 성과를 쌓아온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변화를 위한 치열한 고민, 생활환경 의제 발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지? 여기서 더 나아지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활동가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고, 활동가가 직접 두 발로 현장에 나갑니다. 활동가가 옳다고 믿는 문제가 있다면, 동료 활동가를 설득해 공감과 동의, 지지를 얻는 과정을 통해 일을 해결해 나갑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과 바다 등 자연과 가까운 현장에 있다 보니 시민과의 접점이 많이 없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자주 만날 수 있는 이슈 중 녹색연합이 잘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고, ‘생활환경’ 영역의 문제를 새로운 의제로 발굴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녹색연합을 더욱 역동적이게 만들며, 활동가의 주체성과 추진력이 하나의 사업을 만들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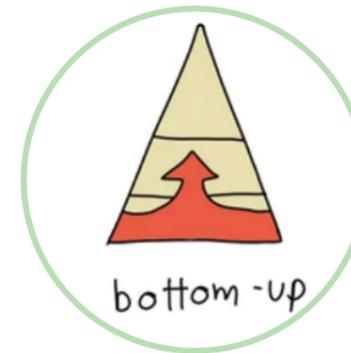
활동하면서 ‘시민과 접점이 필요한 활동이 녹색연합에 없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동료 활동가를 설득해 생활환경 의제를 도입시켰고, 결국 잘 안착이 됐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게 녹색연합의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녹색연합 활동가

Keyword

#활동가의 촉과 역량 #주체성 #전문성 #몰입 #bottom-up



모두가 리더가 되는 곳, 활동가의 주도적 의사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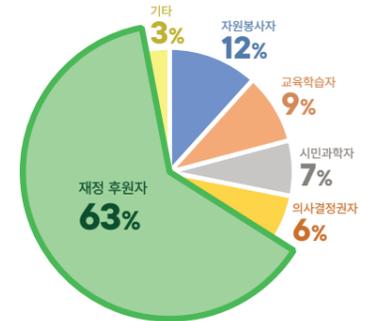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취합하고 대안을 평가하는 논의 과정은 수평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의사결정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활동가의 생각과 현장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는 활동가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장에서 활동가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정 후원을 통해 보내는 응원과 지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녹색연합의 강점인 ‘활동가의 운동력’에 대해 다수의 회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회원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묻는 설문*에 ‘재정 후원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한다는 응답 비율은 과반을 넘는 63%였습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보다, 활동가가 대신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길 바라는 회원 성향이 큰 환경 단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많은 회원들이 재정 후원을 통해 활동가를 응원하고 지지함으로써, 생태와 환경문제의 더 나은 해법을 찾고 실행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 녹색연합 회원 대상 설문조사(2024.3.12~3.20, 255명 참여)

Q. 녹색연합 회원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장기 후원 회원

이미 유행하고 있는 캠페인을 한 번 더 붐업(boom-up, 강화)시키기 보다는, 현장에서 진짜 문제라고 인식되는 이슈를 발굴해 빌드업(build-up, 구축) 시켜 나간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 활동의 중심에는 활동가가 있구요.

▶ [동력2] 야생하다, 현장성

녹색연합 활동가는 환경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기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환경문제를 알리고, 세대를 이어 스스로 지켜질 때까지 현장에 남습니다. 현장성을 중시하는 움직임은 운동의 기민함을 더해주며, 현장성을 기반으로 한 환경 사안에 대한 구체성과 집중력은 녹색연합이 가진 가장 큰 강점입니다.

Keyword

#모니터링 #지역성 #뜨거운 연대 #녹색순례 #생태감수성



연대-협력단체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를 위한 산양 보호 캠페인, 웅담 채취를 위해 희생된 사육곰 보호 캠페인, 야생 조류의 투명 유리벽 충돌 방지 캠페인 등 보호가 필요한 생명을 탐색하고 이를 지켜내기 위한 활동의 집중력은 다른 단체가 쉽게 따라하기 힘든 강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야생동물 모니터링

현장은 녹색연합 활동의 시작과 끝입니다. 현장에서 보고 듣고 포착한 내용은 녹색연합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사육곰 보호, 산양 보호, 생명이동권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직접 현장을 누비고, 무인카메라와 GIS 등의 기법을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유관 기관과 협력하며 축적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긍정적인 사회 변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산양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산양 서식지를 분석하고 보존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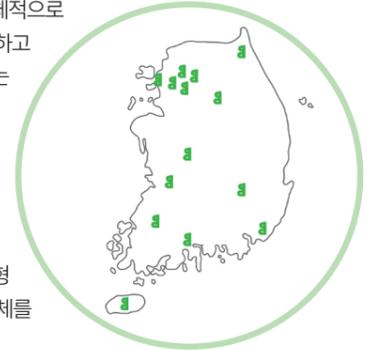
연대-협력단체

<p>사육곰 보호¹⁾ </p> <p>현장 모니터링: 80 건 전문가 자문 기반 실태조사: 6 건</p>	<p>산양 보호²⁾ </p> <p>현장 모니터링: 34 건 전문가 자문 기반 실태조사: 20 건 울진-삼척 지역 무인센서카메라 설치: 116 대</p>	<p>새충돌 방지³⁾ </p> <p>방음벽 조류 충돌 모니터링: 30 건</p>
<p>로드킬 방지⁴⁾ </p> <p>현장 모니터링: 42 건 전문가 자문 기반 실태조사: 7 건</p>	<p>사향노루 보호 </p> <p>현장 모니터링⁵⁾: 9 건 전문가 자문 기반 실태조사⁶⁾: 3 건 서식지 무인센서카메라 설치⁷⁾: 23 대</p>	

1) 2003-2023 누적 데이터 2) 1998-2023 누적 데이터 3) 2019-2023 누적 데이터
4) 2015-2019 누적 데이터 5) 2010-2023 누적데이터 6) 2020-2023 누적 데이터 7) 2013-2023 누적 데이터

지역과의 뜨거운 연대

녹색연합은 전국 조직으로서, 지역조직을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 현안에 긴밀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합니다. 생태적으로 민감한 현장과 환경 현안 지역을 순례하며 현장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과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지역조직과 연대하며 녹색연합이 활동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연대단체는, 녹색연합이 지역민과 함께 연대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다고 말합니다. 녹색연합은 필요에 따라 전담 활동가가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민의 이야기를 듣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함께 모색합니다. 경북 울진 지역은 녹색연합이 주요하게 모니터링하는 현장이자, 생태계와 주민 공존의 새 지평을 연 지역입니다. 2007년, 울진 금강소나무숲길 기본계획을 구상하며 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 숲길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했고, 이에 따라 주민참여형 숲길을 제안했습니다. 녹색연합은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생태마을, 생태도시, 녹색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연대-협력단체

지역민과 연대가 되게 뜨거우시고, 또 그걸 넘어 다른 지역과의 연대도 굉장히 친밀하게 진행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자연과 온몸으로 소통하기 위한 길, 녹색순례



1998년부터 해마다 봄이 되면 녹색연합 활동가들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열흘간 녹색순례를 떠납니다. 강원도의 송전탑 피해 지역과 새만금 갯벌, 미군기지, 비무장지대, 백두대간, 낙동강, 4대강 사업 예정지 등 뜨거운 환경문제로 떠오른 곳들을 두 발로 걸으면서 생생하게 보고 느낀 것을 세상에 알립니다. 녹색순례는 녹색연합이 '현장성'과 '생태감수성'을 중시하는 곳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줍니다. 차로는 닿을 수 없는 천혜의 자연을 만나 흐려지는 생태감수성을 다시 또렷하게 합니다. 조직 운영과 살림을 맡느라 현장에 자주 가지 못하는 활동가도 시간을 내어 자연과 부대끼고 현장 상황을 직접 목격하며 온전히 느끼는 시간은, 함께 공감하며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줍니다.

녹색순례는 녹색연합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녹색연합 활동가

▶ [동력3] 짙은 호소력, 의심할 바 없는 진정성

진정성 있는 움직임이 사회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과 힘을 가지고 있으며, 녹색연합이 지킨 34년의 시간 동안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얇은 변화나 몇 개의 제도적 변화보다, 사회 구성원들의 근본적인 가치관과 인식 변화를 위해 힘씁니다. 녹색연합과 함께하는 내외부 이해관계자 모두, 진정성 있는 태도를 성과를 내는 주요한 요인으로 이야기합니다.



녹색연합 활동가

녹색연합 활동가로서 진중한 마음으로 대응하고 단단하게 나아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략적 프레임 설계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의 달성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비용을 치뤄야 하는 불평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갈등을 정의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지역주민, 노동자, 시민사회, 농민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방법을 고민합니다. 녹색연합은 이해관계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성숙한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합니다.

누군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녹색연합은 '이동에 대한 권리'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빨리 석탄화력발전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누군가에게,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상생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이것이 녹색연합이 그리는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케이블카 설치를 통한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문화향유권 보장

우리 사회의 교통약자 이동권 우선 확보

정의로운 프레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무조건적 폐쇄

발전 노동자의 안전한 일자리 전환을 위한 녹색일자리 논의 확장

정의로운 프레임

Key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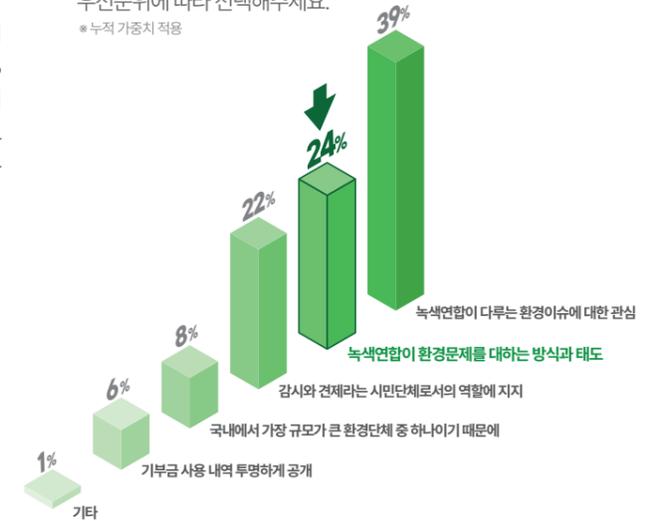
#엄치 있는 #진중한 #정의로운 전환 #협력과 연대

환경 문제를 대하는 방식과 태도에 대한 회원들의 믿음

녹색연합 회원에 대상으로 녹색연합에 정기 후원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환경 이슈 자체에 대한 관심과 시민단체 역할을 지지한다'는 응답 외에, 녹색연합이 '환경 문제를 대하는 방식과 태도' 때문이라는 응답이 24%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규모가 큰 단체여서 후원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녹색연합의 태도와 방식에 지지를 보내주시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응답 결과입니다.

* 녹색연합 회원 대상 설문조사(2024.3.12~3.20, 255명 참여)

Q. 녹색연합에 정기 후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2가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해주세요.
* 누적 가중치 적용



엄치가 있는 삶은 특별히 어렵지 않다

녹색연합 활동가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과 원칙은 일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만나는 태도, 그리고 연대하는 역할에서의 태도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활동가 스스로도, 연대하는 단체도, 오랜기간 후원하는 회원도 녹색연합의 '엄치 있는 마음'을 오랫동안 자연을 지킬 수 있던 단단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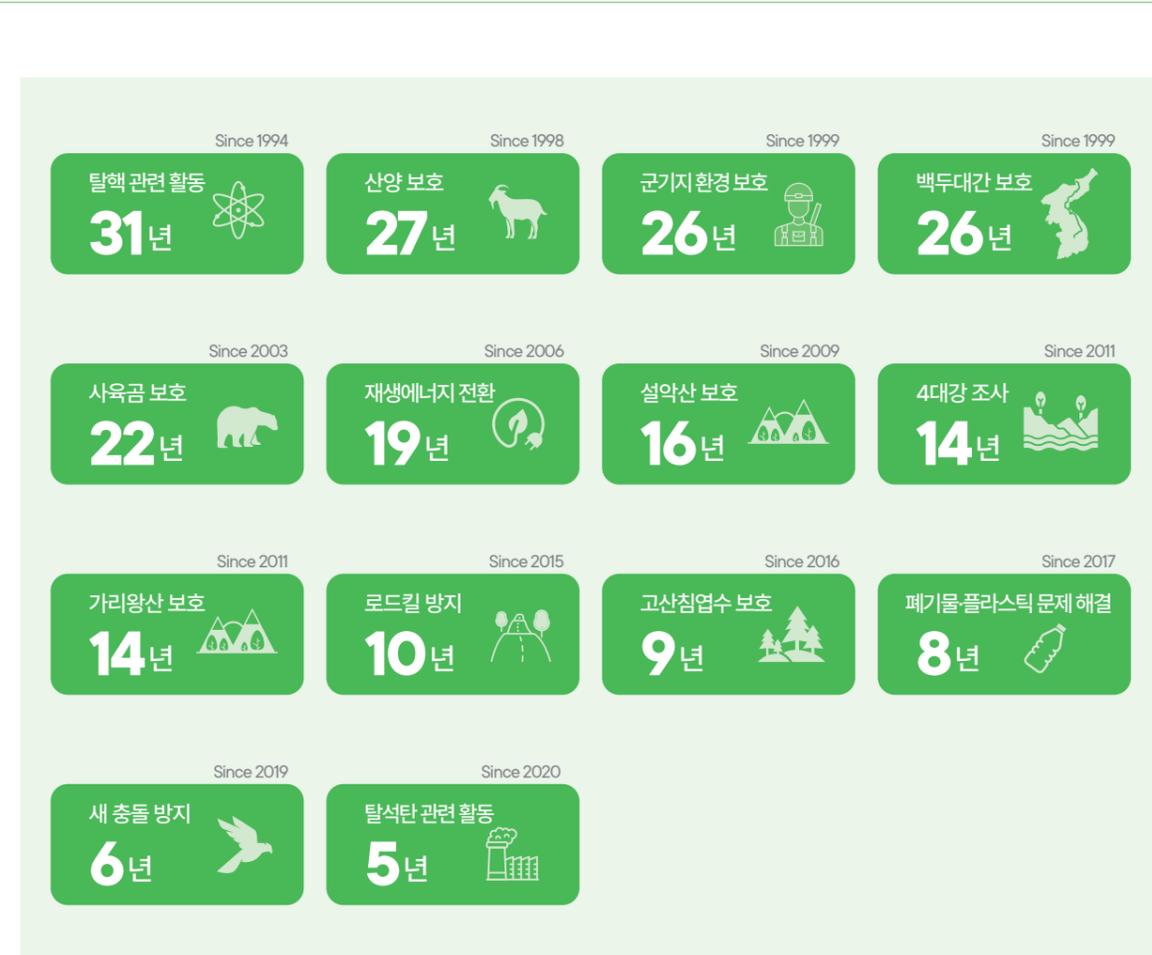


녹색연합 활동가

녹색연합의 강점을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엄치 있는 태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동력4] 존재와 지속의 이유, 책임감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은 대부분 정량적인 성과 측정이 어렵고, 짧은 시간 내에 목표한 변화를 만들어 내기 어렵습니다. 활동의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한 녹색연합의 체력과 지구력은 집요하고 끈질긴 의제 해결력으로 나타나며, 똑심있게 버텨온 기간 자체를 임팩트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마땅히 져야 할 책임과 역할을 위해 과거 오랜기간,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녹색연합 활동가

녹색연합의 강점이기도 하고 차별점이기도 한데, 정말 집요하고 끈질기다는 거예요.
저희는 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할 때
'이거 녹색연합이 안 하면 누가 해'라는 관점으로 많은 논의를 해요.

Keyword

#집요한 #끈질긴 #책임과 역할 #지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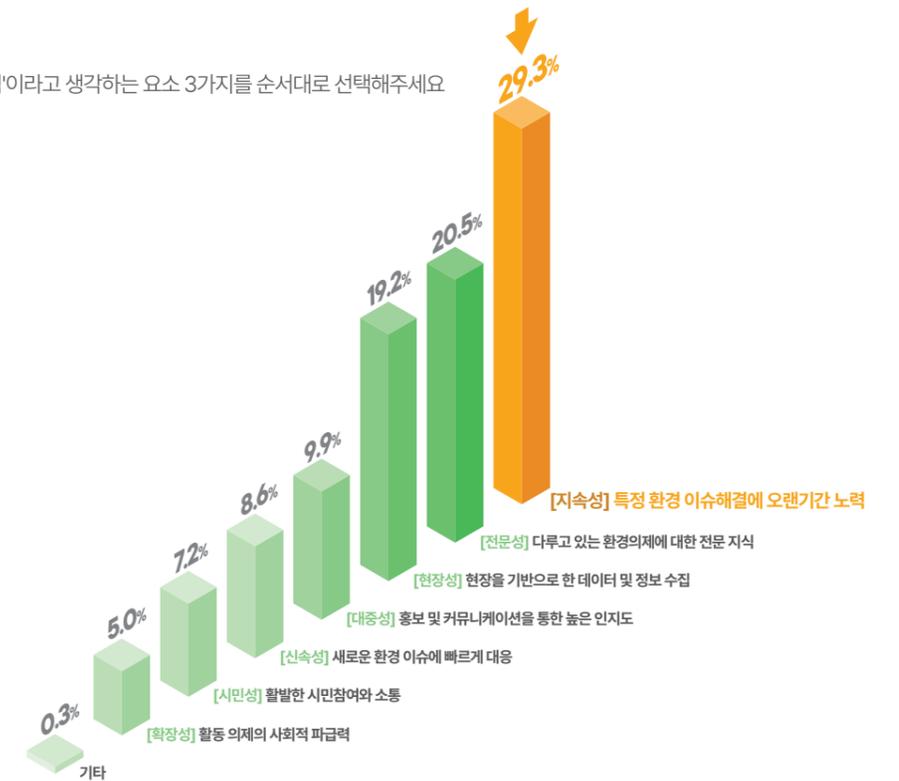
환경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 지속성

회원을 대상으로 녹색연합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요소를 물었습니다*. '특정 환경 이슈 해결에 오랜 기간 노력해온 지속성'을 녹색연합의 가장 큰 강점으로 응답한 비율(29.3%)이 가장 높았으며, 흔들리지 않고 끈질기게 생태위기 현장을 지키는 모습을 많은 회원들이 지켜 봐주고 계셨습니다.

아울러 다루고 있는 '환경 의제에 대한 전문성'은 20.5%, '현장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및 정보수집'은 19.2%의 응답으로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터뷰에서 도출한 강점을 다수의 회원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킨 원칙과 행동으로, 앞으로도 자연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 녹색연합 회원 대상 설문조사(2024.3.12~3.20, 255명 참여)

Q. '녹색연합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요소 3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주세요
※누적 가중치 적용





▶ 미래비전

✓ 오염자부담원칙이 법제도로 구현되고, 상식으로 통용되도록!

오염된 상태로 돌려받는 주한미군 반환기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생물다양성, 각종 난개발로 피해 받는 지역주민 등 환경 현안의 중심에 '오염자부담원칙'을 법제도로 더욱 단단히 하고, 또 통용되는 상식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제도가 있습니다. 오염자부담원칙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담아야 하며, 훼손했을 때 원상복구 책임을 강제하는 벌칙조항도 사업자 편이 아니라 훼손된 생태계 편에서 강화되어야 합니다. 녹색연합은 충분한 데이터와 사례,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현장과 정책현장을 연계해 환경영향평가협의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 방치된 환경 현안을 발굴하고 시민에게 알리기!

'깨진 유리창'처럼 방치되어 있는 환경현안을 발굴하고 당장의 편리나 무관심이 환경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파편적으로 문제가 발현되는 그린벨트,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철새보호지역 등 충분한 사례를 수집해서 조그만 상처가 어떻게 전체를 훼손하게 되는지 광범위한 플랫폼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녹색연합은 육상, 습지, 해양 등 파편적이고 개별적인 보호지역들을 통합적인 관리체계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 자연이 공공재로서 충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의 인식을 바꾸기!

기후위기 시대, 우리 자연은 공공재로서 충분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공공재의 의미와 기능을 충분히 담아 일방적인 편익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시민들의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과 그에 따른 재원이 필요합니다. 바람, 태양, 강, 바다 등과 같이 명확한 자연의 산물이 아니더라도 소유자가 있는 산림까지도 공공재로서 의미는 퇴색되지 않습니다. 녹색연합은 출판, 컨퍼런스, 온·오프라인 홍보, 정책담론 생산 등으로 공공재인 우리 자연의 위상을 시민 삶 속에서 높일 것이며, 개인의 자산, 지역의 자산만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포함해 인류의 유산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입니다.



Interview: 변화를 만드는 혁신가들

임팩트 측정을 하면서 사회혁신조직의 활동과 조직 운영, 성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 연간보고서, SNS, 뉴스레터 등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는 사회혁신조직 안과 밖에서 변화를 만드는 혁신가들의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임팩트 리포트를 기획하며 만났던 혁신가들의 임팩트에 대한 생각,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합니다.

Behind 'The Impact Report'

인터뷰이 :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

Q.

임팩트그라운드에 참여하는 사회혁신조직의 임팩트 리포트 제작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 녹색연합의 임팩트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A.

환경단체가 하는 일은 쉽사리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법제도를 개선했다고 해서 개선 효과가 단번에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요. 성과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임팩트 측정을 어떤 경로와 기준으로 하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더불어 성과 측정의 과정과 경험, 결과가 녹색연합의 활동 계획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Q.

저희도 녹색연합의 성과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정말 많이 고민했던 시간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지난 34년간 운동해온 것 자체를 성과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녹색연합을 움직이고 있는 핵심 임팩트 동력을 찾아 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과를 정량적으로 잘 정리해주신 덕분에 측정 작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팩트를 측정하는 동안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녹색연합이 해 온 일들을 그야말로 '정리'하는 계기였어요. 우리가 어떤 성과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려고 해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좋았어요. 그리고 활동 결과와 임팩트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이었어요. 계획을 세울 때 뚜렷한 기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Q.

성과를 정리하고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과정에서 녹색연합이 우리 사회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도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녹색연합이 생각하는 임팩트(성과)를 만들어 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나 강점은 무엇인가요?

A.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활동가 중심 운동'이 녹색연합의 가장 큰 차별점이자 강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어요. 활동가 중심의 환경운동은 환경 현장을 전문가 그룹과는 다른 '활동가들의 현장'으로 만들어요. 어떤 한 가지 이론이나 개념에 묶이지 않고 다양한 상상과 기획을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수월하죠. 녹색연합이 지금까지 다양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바로 활동가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연합은 이번 임팩트그라운드 사업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는 임팩트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녹색연합의 임팩트를 정의하고 구조화하며, 변화의 정도를 측정 및 분석한 경험은 녹색연합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향후 본 보고서가 녹색연합이 임팩트를 창출하고 확장하는 데 디딤돌로 활용되어, 더 깊고 풍성한 임팩트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후원 및 조직 안내

“당신의 후원으로 녹색연합은 생명의 편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나라 자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19길 15
대표전화 02-747-8500
대표메일 greenkorea@greenkorea.org
홈페이지 greenkorea.org